올해 경남문예 국제 브랜드화

입력시간 : 2009. 01.19. 20:00

올해 경남도는 경남문화재단 설립, 월드콰이어챔피언십코리아2009, 이순신 뮤지컬 등 굵직한 사업들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문화정책도 명품브랜드 축제 육성 및 문화복지 실현, 경남문화의 정체성 확립 및 문화콘텐츠 육성, 월드콰이어챔피언십 코리아 2009 성공적 개최 등으로 세우고 한 해 살림에 들어갔다.

경남도에서 올해 추진하는 문화예술 관련 행사를 간략하게 살펴보자.

도내에서 개최되는 음악, 연극제들을 국제적인 브랜드로 키워나가기 위한 발판이 마련된다.

각각 마산・밀양・거창에서 열리는 국제연극제를 명품국제연극제로 육성하기 위해 3억 원의 예산을 들여 전문용역기관에 연구를 의뢰한다.

도내 유일한 국제음악제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통영국제음악제는 올해 17개국 35팀이 참가할 예정이고 올해 국제음악콩쿠르는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로 명칭을 변경해 첼로부문이 경쟁을 펼친다.

사천세계타악축제는 미국・일본 등 8개국 12팀이 참가할 예정이다.

지난해 첫 선을 보인 이순신 뮤지컬은 올해 4월 서울 충무아트홀 공연, 6월 대구 뮤지컬 페스티벌 참가, 7월 WCC 대회, 이후 전국 순회공연 등의 일정이 잡혀 있다.
올해는 15억 원이 지원된다.

도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도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문예진흥기금, 무대공연작품,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 등에 214억 8000만 원이 지원된다.

특히 일반 관람객이 이해하기 어려운 미술관・박물관 전시 효과를 높이기 위한 도슨트(전시해설 안내자) 운영에 15개소 10억 8000만 원을 지원한다.

3년째를 맞는 경남 메세나운동을 더욱 활성화 시키기 위해 기업과 예술단체 결연 및 매칭펀드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올해는 50개사에 8억 원이 지원된다.

경남인터넷 미술전시장을 개설해 사이버 미술전시장, 인터넷 미술품 경매장 등으로 활용한다.

경남 미술 경매시장도 개설해 도내 거주 전업작가 위주로 오프라인 경매시장을 운영할 계획이다.

경남문화재단 설립

김태호 도지사 공약사항이었던 경남문화재단이 올해 6월께 출범할 예정이다.

문화예술 창작・보급, 문화산업 육성 지원, 전통예술의 전승과 문화유산 발굴 보존 및 활용 등을 위한 경남문화재단은 자본금 300억 원(문예진흥기금 103억 원) 규모로 설립된다.

3월께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공청회를 개최하고 4월 관련 조례를 제정, 6월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창녕 우포늪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

도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인 창녕 우포늪(127만 8285㎡)의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추진한다.

5월 문화재청이 습지, 갯벌이 세계자연유산 등재 공고를 내면 6월 잠정목록 등재 신청을 하고 올해 말까지 문화재청과 함께 등재 준비를 할 계획이다.

월드콰이어챔피언십코리아2009 개최

세계합창대회인 '월드콰이어챔피언십 코리아 2009'가 오는 7월 7일부터 17일까지 창원, 마산, 진주, 김해에서 열린다.

80여개국 400여 개 합창단이 참여하는 이번 대회에는 총 95억 원의 예산(국비 20억 원, 도비 55억 원, 시비 10억 원, 협찬 등 10억 원)이 소요된다.

도는 도의회의 지적에 따라 부대행사를 줄이고 국비재원 및 협찬금 확보로 예산을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역예술인들이 행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개·폐막식 축하공연 등 도내 합창단, 오케스트라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방소희 기자>

<방소희 기자> shbang@kndaily.com <방소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는 **경남매일**(http://www.kndaily.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kndaily.com